예수님의 돈의 철학

(눅16:1-13)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돈의 철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돈의 철학'

2010년도에 '경영학자가 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임 석민 교수님께서 펼쳐내신 책인데, 87년에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의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물론 이 철학자는 게오르그 짐멜은 1918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이 너무 난해하고 재미없고 어려워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7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무려 23년 동안이나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색을 하신 그 결과를 집대성해서 만들어 낸 책이, 바로 '경영학자가 쓴 돈의 철학'입니다.

이 임 교수님의 책의 요지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돈 자체가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부여한 것이다, 인간의 판단의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바꾸면 얼마든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바로 책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돈에 대해서 게오르그 짐멜이 그리고 임 석민교수님께서 돈의 철학을 얘기하기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미 돈에 대한 철학적 당신의 견해를 갈파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바로 결론인데, 이 결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입부분에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하나 있는데, 그 청지기가 태도가 불손하고 일을 성실히 안 했다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알립니다.

이제 해직의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뭐 평생 이렇게 관리만 하는 청지기 노릇만 하던 사람이 노동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직장을 얻어서 생계를 꾸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뭘 할까 생각하다가, 주인이 갖고 있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불러다가 채권증서를 보니까, 이게 빚진 게 기름이 백 말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게 기름이 백 말인데, 이 백 말을 오십 말로 고쳐서 싸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채무자들은 깜짝 놀라지요.
왜 지금 청지기가 백 말 빚졌는데 오십 말로 줄여서 쓰라고 하는지, 그리고 밀을 백 석 빚진 사람은 불러다가 팔십 석이라고 줄여서 쓰라고 하고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채무자들이야 너무 좋지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채무자들을 친구로 사귀면, 나중에 내가 이 청지기 직을 잃었을 때, 그들이 나를 잘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증서를 위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조를 한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참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칭찬은 그러니까 '어~ 참 잘했네!'라는 그런 경이로움에 겨운 칭찬이 아니라, '고놈의 자식 정말 약아빠진 놈이야!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그런 칭찬이겠지요.

이 청지기 비유에서 주님께서 끌어낸 말이 뭐냐 하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도대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채권증서를 위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위조 자체가 불법인데.
'잘했다'라고 까지는 못하지마는 지혜롭게 처리했으므로 칭찬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위조문서에 대해서 고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이 관행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율법에는, 형제에게 돈이나 물건이 될 만한, 그러니까 재물이 될 만한 물건을 빌려줄 때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출애굽기나 신명기, 레위기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고 고리대금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법이 완전히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이 관행을 알면서 이 고리의 이자율을 받아들이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빌려갑니다.
그럼 왜 청지기는, 기름 백 말인 채권증서를 고쳐 썼을까요?
기름을 오십 말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때 관행상, 이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 같은 기름은 이자가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오십 말을 빌려다가 갖다 팔려 그러면, 아예 증서에는 백 말을 빌렸다고 쓰고 오십 말을 빌려갈 수가 있었고, 밀은 왜 이십 석을 제외한 팔십 석으로 고치라고 합니까? 밀은 이자율이 25%였습니다, 고리대금업의 이자가.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규정을 어기고 고리를 함께 포함시켜서 채권증서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불법에 해당되는 이자를 다 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그 채무자들의 증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법정에서 한번 해 볼 텐데, 청지기가 이렇게 위조를 해 버렸으니까, 이 주인으로서는 불법인 것은 분명하니까, 관행상 그렇게 했지만 불법인 것은 분명하니까, 청지기를 공적으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지기의 불법행위를 공론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율법에 규정 되지 않은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규정 외의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자,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므로 이 이자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돈을 어떡하던지 많이 끌어 모아야 될 필요가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 품팔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떡하던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한 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묘하게도, 그렇게 증서를 위조를 할 거였으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마땅히 되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오십 말을 깎아주는 대신에 이십 말은 나한테 줘라!'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밀 이십 석을 깎아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그 중에서 열 석은 나한테 줘라!’
지금 가장 이렇게 재물을 모아야 될 필요가 극한에 달한 상황이었는데, 이 청지기가 마치 마음에 재물 자체는 재물에 대해서는 마음에 방수처리를 한 것처럼, 한 푼도 손을 대지 않고, 그 모든 돈을 다 친구를 사귀는 데에 흘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필요한데도, 마음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은 가장~ 고조 되었을 시기에 돈을 하나도 빨아들이지 아니하고, 돈이 마치 방수처리 된 것처럼 그저 겉 돌면서 방향만 틀어 가지고, 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돈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마음에 방수처리를 해 가지고 내 마음으로 흡수해 버려서, 내가 돈을 가짐으로써 이런 저런 걸 쓰면서 기쁨을 얻고, 내 안정된 생활의 기반으로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돈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방수처리를 해 가지고 방향을 바꿔 돌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돈에 대한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 친구들이 메시아입니까, 영원한 곳으로 영접하게?
이건 그 뜻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내가 마음으로 흡입하지 않고 방수처리 한 것처럼 땡글땡글 겉도는 그 돈을 방향을 틀어서 다 내보내고 나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처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한 재물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11절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에 어떻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재물을 섬기는 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과 섬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왜 같은 말로 쓰여 질까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래야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재물을 섬기는 게 뭡니까?
우린 '섬긴다' 그러면, 충성 봉사 헌신 이런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뒷골목 보스를, 그 밑에 졸병들이 섬긴다고 얘기할 때, 그 섬김의 태도가 가능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보스의 힘이 이 졸개들에게 신뢰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보스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을 섬긴다 하는 것도,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사장님과 그 회사가 망할 위기에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을 믿을 때, 그때 섬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돈의 힘을 믿는 겁니다.
돈의 힘을 믿는 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돈의 힘을 믿는다는 게 뭐지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어!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마치 든든한 보스가 내 뒤에서 빽이 돼서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회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그 속에서 안정된 삶을 얻는 것처럼, 돈의 힘을 믿어서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모~든 게 인생이 다 회색빛으로

변해 버리는 것, 이게 돈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 돈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대칭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돈이 없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느껴질 때 불안한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 불안한 것은 별의 별것이 다 준비가 되도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뭐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실감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편안~ 합니다, 이 세상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 힘을 믿으니까.
근데 그 대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건강이 상해도, 뭐 자식이 별 볼일 없어도, 하나님만 내 마음으로 느껴지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돈 달라고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데, 이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건 결국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는, 결국 너는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만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만 느끼고, 마치 손으로 찬물을 만지면 차다고 느끼듯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돈을 얻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면서 생기는 기쁨으로,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울만한 빈 구석이 없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기쁨을 얻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뜻이 내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돈이 따라옵니다.
이때 이 돈은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대칭되는 참된 재물입이다.

왜냐하면, 규정되어 있는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청지기 비유에서,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십 말의 기름과 이십 석의 밀이 불의한 재물 아니었습니까? 규정 외의 돈.
그러니까 규정 안에 있는 게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만족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뜻을 수행해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 뜻의 수행! 그 뜻이 바로 규정이 되어서,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십니다.
이건 규정된 돈이고 참된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돈을 벌 듯이 하나님을 벌어서, 돈에 부자가 되면 안정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서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온 돈들, 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해야 하나님의 뜻이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다~ 결과적으론, 내 빈 속, 내 만족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배부르지 않았는데 내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불의한 재물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흡수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믿음인지 아십니까?
방수 처리한 마음으로 한 방울도 흡수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으로 만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가지고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게 들어온 참된 재물, 규정된 돈이 아니지마는, 내가 그 재물에 대해서 방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돌려보내는 그 일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간다.
이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게 믿음이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이 내 마음에 효과를 발휘할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내가 죽은 것으로 효과를 발휘해 내실 때에, 내 안에 들어온 돈들은 내 마음이 하나도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온 돈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해서 쓰이게 되는 게 아니라, 방향만 바꿔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프로젝트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주신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래도,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편에 계신 그 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만족해지는 거니까, 아직 그 단계에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돈이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은행직원이 하루 종일 손이 노래지도록 돈을 만지지마는, 단 한 푼도 그 돈을 마음으로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흡입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내 돈 삼아서 내가 무엇을 쓰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배부르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돈이라면, 이건 불의한 재물이고 규정 외의 돈입니다.
고리대금업의 기름 오십 말과 같고 밀의 이십 석과 같은 그런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청지기가 하나도 자기가 갖지 않고 다~ 돌려보낸 것처럼, 어디론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돈의 철학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돈을 흡입해 버리면 믿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돈을 흡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는 게 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 있다 없다, 어디다 쓰나 마나 하는 돈의 문제에 우리가 참여하기 이전에, 무조건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규정 안의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저거 사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그대로 쓰시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써 나가시다가는, 결코 믿음자체에 도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야 돈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돈이 생겨서 해결되건, 돈이 없어도 만족해서 해결이 되건…
돈이 들어온다 그래도 위험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돈의 철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되풀이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돈의 철학을 나의 철학으로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끔찍한 이 돈, 주님이 갖고 계신 돈의 철학을 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여, 돈에 대해 주님이 보실 때 전혀 거슬림이 없는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